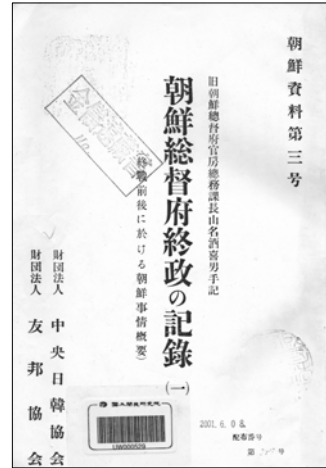


11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録 조선총독부 종정의 기록

1956년 / 山名酒喜男(야마나미 키오) / 230면 / 14,10-09 야31조 1956

이 기록은 당시 조선총독의 비서관 겸 총무과장이었던 山名酒喜男(야마나미 키오)가 1945년 11월에 귀국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그 해 12월 24일에 탈고했다. 일본에서는 전후 이 문서를 ‘환상의 문서’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야마나미 키오는 일본이 패전하자 총독과 정무총감(政務總監)을 도와 미군정으로서의 사무인계를 비롯한 일본 교민의 본국 귀환업무 등 수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미군과의 사이에 통역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야마나미 키오는 히로시마 현 출신으로 1929년에 동경 제국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다.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는 외무성 북방과장, 회계검사원의 제3국장과 사무차관을 지낸 다음 1955년에 퇴임했다.

이 보고서는 첩판에 굵은 등사판인데 총 230면에 달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5일 해방이 되자 9월 7일에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였다. 이어 9월 9일 오후 4시 총독부(구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하지 중장과上月(가미즈키) 조선군 사령관, 阿部(아베) 조선총독 및 山口(야마구치) 진해 경비부사령관 등이 항복문서에 조인 서명했다. 조인식이 끝나자 오후 4시 20분경에는 조선총독부 정문 국기계양탑에 있던 일장기가 미국의 성조기로 바뀌었고, 이 날짜로 경인지구(京仁地區)의 일본군은 철수했다. 9월 7일 미군진주에 앞서 9월 6일 미국 제24사단의 하리스 준장이 비행기편으로 와서 7일날 정무총감(부

총독)에게 항복 조인식이 있을 때까지 총독에게 결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극도의 혼란기를 맞은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불상사 통계를 보면 일본인들에 대한 것은 극소수인 데 반해 조선인 경찰관과 읍면서기들이 화를 입은 것이 더 많다. 미 군정은 패전국의 총독과 정무총감을 전관예우(前官禮遇)해서 이들 두 사람을 미 군용기로 일본까지 호송하는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한편 만주(중국의 동북 3성)와 북조선 및 남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항으로 쇄도하기 시작했다. 부산항은 상시 2만 명이 넘는 귀환자가 집결함으로써 숙박, 식량, 의료 등에 큰 혼란이 생겼다. 당시 조선에는 80만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는데 북선에 25만 명, 남선에는 55만 명이 있었다. 여기에 만주 거주 일본인과 관동군(關東軍)이 겹쳐 수송에는 일대 혼란을 빚었다. 10월 24일 현재 일본인 귀환자는 17만 3천 명이었고 조선인 귀국자는 15만 7천 명이었다.

한편 일제가 8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발행 초과액이 36억 엔이었고 9월 28일 하루의 발행고가 86억 5,800만 엔이었다. 1944년 조선총독부 예산이 23억여 엔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해방 직후 그 무시무시했던 인플레이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총독부는 패전 6개월 전부터 패전을 감지하고 나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미리 퇴직금을 주어 본국으로 귀환시킬 때에 막대한 돈을 찍어내기도 했다.